**벧전0224(2) Note**

**◆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질병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 요약**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여러권의 책에서 우리의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메모해 두었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차례

Ⅰ질병이 들어 옴

Ⅱ.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Ⅲ.건강에 관한 우리의 권세

Ⅳ.하나님치료방법

Ⅴ.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

Ⅵ.질병속량 말씀

Ⅶ.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

Ⅷ.신유은사

Ⅸ. 치유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Ⅹ.병이 낫지 않는 이유

**Ⅰ질병이 들어 옴**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

출1526. 그리고 말씀하시니라, 만약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또 그분의 눈에 올바른(야솨르:곧은,편리한,공평,정직한,적합하다,기뻐하다,옳은) 것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법 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미쯔바:인간이나 신의 명령,법령,명령)들에 귀를 주고, 그분의 모든 법령[새겨진 법/호크:하카크(자르다,새기다,원시시대에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긴 법들을 제정하다)에서 유래,재정(裁定),지정,제정한,한계,계명,편리한,습관,규례,의무,율법,측정,필요한,법령,몫,정해진,시간,규정,과업,몫]들을 지킬 것이면, 내가 애굽인들 위에 가져갔던 그 질병들 중의 어느것도 네 위에 놓지 않을 것이니라, 이는 나는 너를 고치는(라파:꿰매서 고치다,치료하다,낫게하다,의사,수선하다,온전하게 하다)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이나, 애굽인에게 질병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는 자는 이세상의 신인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픈 것과 질병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한 그들 가운데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짓고 그들의 몸이 질병으로 가득 찼을 때도 그들은 주께로 돌아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몸의 치유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103:03. 그분께서 네 모든 사곡(邪曲)함[아본:아바(구부리다,굽게 만들다,왜곡하다)에서 유래,사악함,악,과오,범법,해,(불법에 대한)징계,죄,이탈]들을 사면하여 주시며(쌀라흐:용서하다,관용하다,용서해주다), 네 모든 질병(타할루:질병,병,통탄할 만한,아픈)들을 고쳐주시느니라(라파:꿰매서 고치다,치료하다,낫게하다,의사,수선하다,온전하게 하다)

시103:04. 그분께서 네 생명을 파멸(솨하트:함정,멸망,부패,도랑,무덤,구덩이)로부터 되사시며[가알:(혈족관계에 대한 동양법을 따라)무르다,(친척의 소유를 다시 사든지, 그의 과부와 결혼하는 등에 의하여)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 아무래도,전혀, 무르는 자,복수자,구해내다,(일가나 일가가 될 의무를 행하는)친척,사다,배상하다,구속하다], 그분께서 네게 인애(헤쎄드: 인자함,경건,아름다운,은총,선행,친절하게,인애,연민,자비,긍휼)와 부드러운 연민(라헴:자궁,처녀,내장,연민,애정,자비심,불쌍히 여김)으로써 관 씌우시느니라(아타르:왕관을 씌우다,주위를 돌다,관 씌우다,둘러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단지 구속에 대하여 약속어음만 지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아래서 그것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요.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이나, 애굽인에게 질병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는 자는 이세상의 신인 마귀입니다.

◇질병의 영

**Ⅱ.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출1526. 그리고 말씀하시니라, 만약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또 그분의 눈에 올바른(야솨르:곧은,편리한,공평,정직한,적합하다,기뻐하다,옳은) 것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법 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미쯔바:인간이나 신의 명령,법령,명령)들에 귀를 주고, 그분의 모든 법령[새겨진 법/호크:하카크(자르다,새기다,원시시대에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긴 법들을 제정하다)에서 유래,재정(裁定),지정,제정한,한계,계명,편리한,습관,규례,의무,율법,측정,필요한,법령,몫,정해진,시간,규정,과업,몫]들을 지킬 것이면, 내가 애굽인들 위에 가져갔던 그 질병들 중의 어느것도 네 위에 놓지 않을 것이니라, 이는 나는 너를 고치는(라파:꿰매서 고치다,치료하다,낫게하다,의사,수선하다,온전하게 하다) 여호와임이라.

◇질병에 대한 아버지의 뜻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아파서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임을 나는 믿습니다.

◇ 말씀으로 치유

시107:20.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느니라(라파:꿰매서 고치다,치료하다,낫게하다,의사,수선하다,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그들의 파멸(쉬히트:함정,파멸,구덩이)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말씀입니다.

Ω요0101. 시초[아르케:시작,(질서 시간 장소 계급 등에서)우두머리,모퉁이,첫자리,방백,권세,주권,원리,통치]에 말씀(로고스: 말해진 어떤 것, 주제, 신의 현현, 말씀, 관계된 것)이 계셨느니라(미완료형),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 몸의 건강과 양약

잠0422. 이는 그들은, 그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며, 모든 그들의 육신에게 건강(마르페 : 치료, 양약, 건강)임이라.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이 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체의 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잠0423. 온갖 부지런함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배출구(토짜아: 출구,경계,건져냄,근원,나아감,발행,피함)들은 그것에서 나옴이라.

**Ⅲ.건강에 관한 우리의 권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1617. 그리고 이들의 표적들이 믿는 그들을 따르느니라(파라콜루데오:가까이 따르다,(결과를)수반하다,따르다,도달하다,완전히 알다,이해하다), 내 이름으로 그들이 악령들을 몰아내며, 그들이 새로운 말들(글롯싸:혀,언어,말,방언)로써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병든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당신이 마귀에게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당신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든지, 못느끼든지 당신의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당신의 기분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나,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원해 주시며,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기자의 누구도 단 한번도 너희에게 하나님이나 나에게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너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처음 표적 중의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말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나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넘겨 주었고, 나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 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막1620.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뒤따르는(에파콜루데오:동반하다,뒤따르다) 표적들로써 말씀을 확증하시는(베바이오오:확고하게 하다,확증하다,확립하다) 가운데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낱낱의 곳에서 선포하니라[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아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1618. 그들이 큰 뱀[오피스:옾타노마이(응시하다)에서 유래,뱀,(어리석은 기만의 유형으로)의도적인 해독자,사단]들을 들어올리느니라 [아이로:들어올리다,일으키다,취(取)하다,치워버리다,닻을 올리다,죄를 속하다,없이 하다,지탱하다,운반하다,느슨해지다,제거하다,데리고 올라가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다나씨모스:운명적인,독성있는,죽을 만한) 것을 마시면, 그것이 그들을 해치지(블랖토:방해하다,해롭게 하다,해를 끼치다) 못하느니라, 그들이 병든 자들 위에 손들을 얹으며, 저들이 회복되느니라[칼로스:(항상 도덕적으로)잘,(장소에서)좋은,정직하게,회복하다,(완전히)좋아진]

손을 얹는 시점이 접촉점입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접촉점이 치유의 시작을 믿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치료를 믿기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십시요

믿는 것 다음에 소유하는 것이 옵니다.

치유 받았음으로 주를 두손들고 찬양하십시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리를 마귀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십시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 위에 행사하는 마귀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누가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Ω약0516. 너희 허물(파라프토마:옆으로 미끄러짐,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탈선,실수,과오,범죄)들을 서로에게 털어 놓으라(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것이니라, 적법한[디카이오스:디케(옳은,공의,심판,처벌,복수)에서 유래,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히브리어 짜디크,차디크: 도덕적으로나 법정적으로 올바른, 공정한, 합법적인,의로운] 자의 유효하고 뜨거운(에네르게오:활동적이다,효과적이다,행하다,강렬하다,능력있다,자신을 나타내다,효과적으로 일하다) 기도는 효력이 있느니라 (이스퀴오:힘을 갖다,힘을 행사하다,할 수 있다,선하다,힘이 강하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상호 기도하라

우리는 종종 한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다가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그 분께 귀 기울여 듣고, 그 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 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환자의 상태의 경중이나 환자의 병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병든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든 그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가능의 문, 초자연적인 것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 치유는 우리의 것이다

치유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해 달라고 사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치유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2000년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고, 그 치유는 내 것이다.(완료형), 나는 치유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

◇ 사랑으로 대적하라

◇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구하십시요

Ω요1623. 그리고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느니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아버지께 청구하는(아이테오:구하다,묻다,청구하다,요구하다,필요로하다) 무엇이든,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요1624.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느니라, 청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노니, 너희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니라.

새언약에서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 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아버지오른편에 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새 언약이 발효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언약 아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의 중재로서의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그 분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 가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 기도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 기도문은 신약교회의 기도가 아닙니다.

◇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 ;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과 비밀이 있습니다.

Ω요1412.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위에서 믿는 그 자, 그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또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가 행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지성소에 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적 권능을 실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1413.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청구하는(아이테오:구하다,묻다,청구하다,요구하다,필요로하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희랍어로 <구하라>가 아니고 <요구하라>입니다.

희랍어에는 실제로, "네가 너의 권리와 특권으로써 무엇을 요구하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1414. 만일 너희가 내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어떤 것을 청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행0306.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니라, 은과 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네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것을 예수이름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것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막1618. 그들이 큰 뱀[오피스:옾타노마이(응시하다)에서 유래,뱀,(어리석은 기만의 유형으로)의도적인 해독자,사단]들을 들어올리느니라 [아이로:들어올리다,일으키다,취(取)하다,치워버리다,닻을 올리다,죄를 속하다,없이 하다,지탱하다,운반하다,느슨해지다,제거하다,데리고 올라가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다나씨모스:운명적인,독성있는,죽을 만한) 것을 마시면, 그것이 그들을 해치지(블랖토:방해하다,해롭게 하다,해를 끼치다) 못하느니라, 그들이 병든 자들 위에 손들을 얹으며, 저들이 회복되느니라[칼로스:(항상 도덕적으로)잘,(장소에서)좋은,정직하게,회복하다,(완전히)좋아진]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가능의 문, 초자연적인 것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Ω행0316. 그리고 그분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셨으니, 그를 너희가 보며 또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분에 의하는(디아: 행위의 통로를 가르킴,~을 통하여,후에,항상,가운데,피하다,때문에,~에 의해서,~으로부터,안에,~을 위해,그것에 의해,그러므로,비록,~에게,무슨 이유로,~와 함께) 믿음'이 너희 모두의 면전에서 그에게 이 완전한 건강을 주었느니라.

사5305. 그러나 우리의 범법(페솨:반역,죄,범죄,범하다)들을 위하여 그가 상처를 입었으며(할랄:구멍을 뚫다,상처를 입히다,모독하다,약속을 어기다,시작하다,피리를 불다), 그가 우리의 사곡(邪曲)함[아본:아바(구부리다,굽게 만들다,왜곡하다)에서 유래,사악함,악,과오,범법,해,(불법에 대한)징계,죄,이탈]들을 위하여 으깨어졌느니라[다카:부수러뜨리다,상처를 입히다,다져서 조각을 내다,(조각으로)부수다,죄를 깊이 뉘우치다,으스러뜨리다,파괴하다,낮추다,압박하다,치다]. 우리 평강[강화(講和)/(솰롬:안전한,잘있는,행복한,정다운,안녕,건강,번창,평안,번영,친한,안부,호의,친구,인사,평화로운,쉬다,안전한,편안한)]의 응징(무싸르: 징계,책망,경고,교훈,억제,멍에,견제,교정,훈련,훈계)이 그 자 위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의 채찍자국들(하부라:줄로 맨,채찍자국,멍든,상처,채찍,상함)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라파:꿰매서 고치다,치료하다,낫게하다,의사,수선하다,온전하게 하다).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평강과 건강은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Ω마0816. 저녁이 왔을 때에, 그들이 악령들로써 점유된[다이모니조마이:귀신들리다,(악마에 의해)성가시게 괴롭힘 당하다,사로잡히다] 많은 이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니라, 이에 그분께서 영(靈)[프뉴마:프네오(숨쉬다)에서 유래,공기의 흐름,숨,바람,미풍,영(靈),생동하는 원리,정신적 기질,천사,마귀,하나님,성령]들을 그분의 말씀[로고스: 말해진 어떤 것,주제,논의의 제목,논의,말씀,진술,연설,관계된 것,교리,의도,입,설교,도(道)]으로써 내치시고, 병에 붙잡힌(에코:붙잡다,소유하다,간직하다,동반하다,

보관하다) 모든 이들을 고치시니라,

마0817. 이는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에 의해 말해진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아스데네이아:나약함,질병,연약함,유약함)들을 취하셨으며[람바노:취(取)하다,~을 잡다,꽉 잡다,붙잡다,제지하다,받다,시도하다,권세가 주어지다/히브리어 대응어 라카흐], 우리의 질병들(노쏘스:해악,질병,허약,병)을 짊어지셨느니라(바스타조:들어 올리다,지탱하다,운반하다,짊어지다,감당하다,~을 가지고 가버리다).

마태는 이사야 53;4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5304. 분명코 그가 우리의 질병(홀리:질병,근심,재난,병,병들다)들을 짊어졌으며(나사:받아들이다,일어나다,감당하다,취하다,초래하다,운반하다,가지고 가버리다,떠받치다,일으켜세우다), 우리의 슬픔들(마크오브:고통,괴로움,슬픔,비탄)을 옮겼느니라 (싸발:운반하다,무거운 짐이 되다,임신하다,짐지다,짐이 되다,나르다,노동에 강한).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매를 맞으며(나가:만지다,손을 대다,격렬하게 타격하다,처벌하다,파괴하다,치다,던지다,역병에 걸리다,세게 때리다,치다), 세게 침을 당하며[나카:치다,때리다,쫓아내다,찰싹 때리다,상처를 가하다,죽이다,살해하다,살인자,벌주다,학살하다,살해자,세게 치다,치는 자,치기,맞다,채찍자국(을 내다),상처를 입히다], 고통을 받는다(아나:누르다,자기를 낮추다,괴롭히다,고통,대답하다,자책하다,심하게 다루다,모독하다,훈련하다,힘,정중함,겸손한,겸손,고통을 주다,강탈하다,노래하다,말하다,복종시키다,연약한,어떻게든,근심하다)고 우리가 여겼느니라.

벧전0224. 그분은 나무에 달린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으니(아나페로:들어 올리다,짊어지다,끌고 올라가다,기르다,수행하다,앞지르다), 이는 죄들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에는 살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채찍(몰롭스:검은 점,검은 눈동자,멍든 자국,멍,타박상,채찍)들에 의하여 너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질병에관한 속량의 말씀 곧 이사야 53;4~5/마태복음 8;17/베드로전서 2;24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치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담당하셨고, 짊어지셨으며,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Ⅳ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

◇ 우리의 영을 통해 치료하심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머리 위에 안수는 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는 영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christian science가 치료할 때 우리의 정신(혼)을 통해 치료합니다.

의사들은 환지를 치료할 때 육체적인 것을 통해 치료합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육체나 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고후0517. 그러므로 만약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옛 것들은 사라졌느니라(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Ω요0305. 예수께서 대답하시니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또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0306.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며,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靈)이니라.

우리들의 육체는 아직 속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그 날에는 우리의 육체도 속량될 것입니다

◇치유가 오는 방법

치료는 때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Ω눅1714.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보여주라",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그들이 가는데, 그들이 씻겨 깨끗이 되니라.

우리는 치료가 즉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역사하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즉시 걸었고, 다른 이들은 점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Ⅴ.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

◇사랑과 치유

Ω요1334. 새로운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하라

요1335. 만약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 너희가 내 제자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아느니라.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사탄아,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제 네 손을 내 딸에게서 떼어라" (간질병 딸과 그 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키고,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질병을 제하시고, 우리들의 날 수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치유와 건강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계명, 즉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선하심은(인자하심) 치유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요

행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써와 권능(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으로써 기름을 부으셨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②,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면서, 마왕(디아볼로스: 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에게서 억눌리던(카타뒤나스튜오:지배권을 행사하다,다스리다,압제하다,압박하다) 모두를 고치시면서 두루 다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의 혀와 건강

잠1218. 검의 꿰찌름(마드카라:상처,찌름)들과 같이 말하는 이가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건강(마르페:치료법,약,치료,구출,평온,치료할 수 있는,고치다,건강한,건전한,완쾌하는)이니라.

위의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과 치유가 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Ⅵ.속량 ; 질병속량의 말씀**

Ω마0816. 저녁이 왔을 때에, 그들이 악령들로써 점유된[다이모니조마이:귀신들리다,(악마에 의해)성가시게 괴롭힘 당하다,사로잡히다] 많은 이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니라, 이에 그분께서 영(靈)[프뉴마:프네오(숨쉬다)에서 유래,공기의 흐름,숨,바람,미풍,영(靈),생동하는 원리,정신적 기질,천사,마귀,하나님,성령]들을 그분의 말씀[로고스: 말해진 어떤 것,주제,논의의 제목,논의,말씀,진술,연설,관계된 것,교리,의도,입,설교,도(道)]으로써 내치시고, 병에 붙잡힌(에코:붙잡다,소유하다,간직하다,동반하다,

보관하다) 모든 이들을 고치시니라,

마0817. 이는 대언자(代言者) 이사야에 의해 말해진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아스데네이아:나약함,질병,연약함,유약함)들을 취하셨으며[람바노:취(取)하다,~을 잡다,꽉 잡다,붙잡다,제지하다,받다,시도하다,권세가 주어지다/히브리어 대응어 라카흐], 우리의 질병들(노쏘스:해악,질병,허약,병)을 짊어지셨느니라(바스타조:들어 올리다,지탱하다,운반하다,짊어지다,감당하다,~을 가지고 가버리다).

예수님께서는 75%의 시간을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데 보내셨습니다.

병 고침은 예수님의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주된 주제의 하나입니다.

죄 용서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벧전0224. 그분은 나무에 달린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으니(아나페로:들어 올리다,짊어지다,끌고 올라가다,기르다,수행하다,앞지르다), 이는 죄들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에는 살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채찍(몰롭스:검은 점,검은 눈동자,멍든 자국,멍,타박상,채찍)들에 의하여 너희가 치유를 받았느니라(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Ⅶ.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우리는 종종 한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다가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그 분께 귀 기울여 듣고, 그 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 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 하나님의 주권적, 초자연적 치료

하나님의 주권적 치료와 치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치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Ω요0502. 한데, 예루살렘에 양(羊)시장 곁에, 다섯의 회랑(回廊; 여러 개의 방과 방 또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지붕이 있는 긴 통로)들이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우는 작은 못이 있었느니라.

요0503. 그곳들 안에 눈이 멀고, 절름발이고 움츠러들은 불구의 사람들의 대단한 무리가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었느니라.

요0504. 이는 천사가 어떤 적절한 제때에 작은 못에로 내려가서, 물을 휘젓고(타랏소:마음을 혼잡시키다,두려워하다,자극하다,선동하다,물을 흐리게 하다), 물의 교란[타라케:소동,(물의)교란,(폭도의)선동,동요] 후의 그때에 먼저 걸어 들어가는 누구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에서도 온전하게 되었음이라.

Ω요0505.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삼십 팔년 동안 병약함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요0506. 예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지금 그런 병자로 오랫동안 지내온 것을 아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Ω요0507. 그 불구자가 그분께 대답하니라, 나리, 물이 휘젓어지면 나를 작은 못에로 넣어줄 아무도 내게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이가 내 앞서 내려 가나이다.

Ω요0508.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Ω요0509. 그러자 곧바로 그 남자가 온전하게 되어,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의로 한 천사를 그 곳에 내려 보내시고 물을 휘 젓어서 누군가를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에 있어 이 땅 위의 그 누구에게 동의나 허가를 구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주권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주권으로 어떤 일을 스스로 시작하십니다.

치유함이 없는 교회에 가보면, 회중에 병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치유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에 가보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병든 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치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직 한사람만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요.

예수님도 연못가에 병든 자들이 많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지목하여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들도 이와 유사한 밥법으로 역사합니다.

5,000명정도의 집회에서 오직 15~20명만이 치료받은 집회에 관하여 보거나 들으적 없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한 개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치료하는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병고치는 은사의 나타남은 성령님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심에 따라 나타납니다.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께서 원하시는대로 나타남을 깨달으십시요.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적이 예배 중에 자기에게 일어나기만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결코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며, 결코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어야만 합니다.

<사례>

"네 손을 네 아내 위에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겠다"

그녀는 내 손을 얹자 말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게 병고치는 은사들을 주었다. 나는 너를 병든자를 섬기라고 보냈다"

내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을 때, 나의 장모님의 갑상선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나의 장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성령님께 달려있습니다.

환자를 다룰 때 가끔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기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령님을 관여시켜 보려고 해보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을 시켜 무엇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용하는 대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허용하십시요.

◇"성령안에 in the Spirit" 의 의미

계1;10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나 그 분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그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앞으로, 성경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고 알려진 은사가 네가 성령안에 있을 때 , 네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이러한 영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허락하면 어떻게 붙잡고 지배하고 있는지 네게 보여주겠다"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은사들이 역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된 것, 우리의 공로가 기여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추를 눌러 은사들을 켜고 끌 수 없습니다.

행1617.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외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녀는 그녀 속에 있는 악령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알었습니다

Ω행1618. 그리고 이것을 그녀가 많은 날 동안 하니라, 비탄해 하던[디아포네오:애쓰며 나가다,(수동태) 괴로움을 당하다,슬픔을 당하다] 바울이 돌아서서, 그 영(靈)에게 말하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그녀에게서 나올 것을 내가 네게 명하느니라", 이에 그가 그 시에 나오니라.

왜 바울이 첫째 날에 그 악령을 쫒아내지 않았을 까요?

은사는 바울이 원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원하실 때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를 가질 때까지는 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울이 돌아서서, 그 영(靈)에게 말하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그녀에게서 나올 것을 내가 네게 명하느니라", 이에 그가 그 시에 나오니라.

<사례>

이번에는 갑자기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마치 구름처럼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 바깥쪽 왼쪽 폐위를 (여기서 암이 시작되었습니다) 악령인지, 작은 도깨비인지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 믿음으로 치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치료

◇치유를 받기 위한 준비

◇치유를 쉽게 받기

사람들이 믿음의 매우 높은 곳에 있을 때나(집단적 믿음이 있는 곳),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병고침을 받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대형집회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치유를 쉽게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용서하는 일에 빠르고, 회개하는 데 빠릅니다,

둘째로 그들은 믿는 일에 빠릅니다"

◇치유를 갖게 하는 당신의 믿음

◇당신자신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치료

막0526. 또 많은 의사(이아트로스:의사)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겪었고(파스코: 감각 또는 인상을 체험하다,고난 당하다,환란을 받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써버렸으며, 나아진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된 어떤 부인이,

막0527. 그녀가 예수에 관해 들은 후에, 뒤의 붐비는 군중 가운데서 와서, 그분의 겉옷(히마티온:옷,내복 또는 외투)을 만지니라.

막0528. 이는 그녀가 이를 말하였음이라(미완료 시제) 곧, 만약 내가 그분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온전하게 되느니라.

Ω막0534.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니라, 평온한 [에이레네:에이로(결합하다,묶다)에서 유래,히브리어 솰롬(안녕,평안,번창)에 상응,평화,번영,평강,하나가 됨,고요,안식,다시 하나가 되다/호크마 주석: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종종 뜻한다] 가운데서 가라, 그리고 네 역병에서 온전케 되라.

당신 자신의 믿음도 치료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잇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면 , 너의 믿음도 너를 구원할 수 있단다"

◇믿음의 종류; 치유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을 고쳐주시려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바쁘셔서 나중에 여러분을 고쳐주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고쳐주셔서 질병에서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치유를 못받습니까?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는 치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치유를 얻습니다.

어떤 믿음요? 치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으로 치유를 못받습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나,

이 믿음으로는 치유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받게된다.

Ω마0929.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을 따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으며, 같은 믿음에도 그 수준에 따라 역사함에 있어 다릅니다.

롬1017.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에크:원천(동작이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냄),(장소 시간 원인 또는 직간접으로)~로부터,후에,중에,에 의하여,에게서,로 말미암아,로 만든,에게 속한,자주 기원,원인,동기,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 오며, 들음은 하나님[데오스: 신성(神聖),정관사와 함께 최고 신(神),하나님,신,신을 공경하는,신을 향한]의 말씀(레마:말, 말씀,논제,주제)을 통해서니라(디아: 행위의 통로를 가르킴,~을 통하여,후에,항상,가운데,피하다,때문에,~에 의해서,~으로부터,안에,~을 위해,그것에 의해,그러므로,비록,~에게,무슨 이유로,~와 함께),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이 결정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치유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듣지를 못해서 치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목사님이 성령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며,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 우리가 믿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도, 치유, 거듭남도,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것이기도 하고, 세리의 것이기도 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물들을 받아 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온전하신 젠틀맨이십니다.

그 분은 강제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 선물들은 그 분을 향하여 문을 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문을 닫은 사람들은 이 선물들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자라고 해도 문을 열지 않아 치유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사단의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생각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도록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보다 성령을 더 많이 원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음에 찬양하십시요

두손을 들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요, 영광을 돌리시십시요.

왜냐하면 당신은 앞으로 치유될 것이 아니고, 이미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부러진 그의 등을 치유해 주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Ω약0513. 너희 중에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로 기도하게 하라. 누가 즐거워하느냐? 그로 하여금 성시(聖詩) 들을 노래하게[프살로:잡아다니다,뽑다,윙하고 울리다,현악기를 연주하다,(송시(誦詩)가 동반된 신의 경배를 음악으로 찬양하다,찬송하다] 하라,

약0514. 너희 중에 누가 병에 걸렸느냐? 그로 하여금 교회의 장로 [프레스뷔테로스: 프레스뷔스(나이 많은)의 비교급,더 늙은,손윗사람,산헤드린 회원,기독교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의 권위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하게 하라.

병든자 ; 헬라어번역에 의하면 가벼운 병이 아닌 건강을 잃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야고보의 질문은 그들중에 병든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당시의 성도들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란 말씀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강단에 기름병을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약0515.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며,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빗나감)들을 저질렀다면 그 죄들이 그에게서 사면되느니라.

Ω약0516. 너희 허물(파라프토마:옆으로 미끄러짐,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탈선,실수,과오,범죄)들을 서로에게 털어 놓으라(엑소몰로게오:인정하다,동의하다,전적으로 일치하다,자백하다,고백하다,약속하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이아오마이:치유하다,온전케 하다) 것이니라, 적법한[디카이오스:디케(옳은,공의,심판,처벌,복수)에서 유래,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히브리어 짜디크,차디크: 도덕적으로나 법정적으로 올바른, 공정한, 합법적인,의로운] 자의 유효하고 뜨거운(에네르게오:활동적이다,효과적이다,행하다,강렬하다,능력있다,자신을 나타내다,효과적으로 일하다) 기도는 효력이 있느니라 (이스퀴오:힘을 갖다,힘을 행사하다,할 수 있다,선하다,힘이 강하다)

용서함과 치유함 ;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죄들을 범했다면 그 죄들은 용서받으리라 ; 그가 회개했거나, 자백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인 ;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당신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선함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

사창가에서 맴돌던 형제를 본 해긴 목사님이, 그 형제가 장로로 된 것에 항의하는 해긴 목사님에 대해 예수님이 해긴 목사에게 이르시는 말씀,

“나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어떤 여자성도를 모범 성도로 본 해긴 형제,

겉보기와 달리 40년간 불순종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약0517. 엘리아스는 우리와 같이, 같은 정감(情感)에 좌우되는(호모이오파데스: 유사하게 영향받은,같은 열심의) 사람이었느니라.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기를 그가 진지하게 기도하였느니라, 이에 땅 위에 삼년 육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느니라.

**Ⅷ.신유은사**

◇신유은사와 유사한 것 ; 접촉과 전이의 법칙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영적법칙에 순응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기름부음받은 손은 하나님의 치료능력을 그 환자에게 전이합니다.

기름부음이 없는 믿는 자들 역시 접촉과 전이의 법칙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

혈루병의 여인의 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기름부음을 주었다. 이에 대하여 담대하거라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보았다고 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대로 전하라.

만일 그들이 네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들은 그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능력이 너의 손으로 부터 그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몸에서 치료와 고침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것과 병들을 쫒아 낼 것이다.네가 더욱 담대히 말하면 말할 수록 더 많은 결과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병고치는 은사란 무엇인가

이 은사는 한 개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치료하는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치유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병고치는 은사들>은 아닙니다.

병고치는 은사의 나타남은 성령님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심에 따라 나타납니다.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께서 원하시는대로 나타남을 깨달으십시요.

"네 손을 네 아내위에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겠다"

그녀는 내 손을 얹자말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게 병고치는 은사들을 주었다. 나는 너를 병든 자를 섬기라고 보냈다"

내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때, 나의 장모님의 갑상선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나의 장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일시와 동정심

◇동일시(Identification)

질병에 대해 기도하다보면 당신은 하나님앞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내가 느끼며 내가 환자와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한번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한번의 경우 ; "내가 그를 고치려 왔지만 그는 내가 그를 고치도록 허락하지 않는구나"

◇동정심(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또한 동정심은 하나님사랑의 한 구성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중 동정심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Ω마0935. 그리고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면서, 왕국의 복음(유앙겔리온: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하시면서[케륏쏘:(공적인 선포자로서)전하다,(하나님의 진리를)전파하다,공포하다,발행하다], 백성 가운데서 낱낱의 질병(노쏘스:해악,질병,허약,병)과 낱낱의 허약함[말라키아:말라코스(부드러운,유약한)에서 유래,부드러움,쇠약,허약,연약,병]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모든 성[폴리스:(크든지 작든지 성벽으로 싸인)읍(邑),도시(都市),시,도시국가]들과 마을[코메:마을,읍(邑)]들을 두루 다니시니라.

마0936.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함께 걷기'로 동요되시니라 [스랑크니조마이:간절히 열망하다,동정(同情)을 느끼다,열정을 갖다]. 이는 아무런 목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양들과 같이, 그들이 쇠약해져(스퀼로:껍질을 벗기다,괴롭히다,귀찮게 하다) 널리 흩어졌음이라,

마1414. 이에 예수께서 앞으로 나가시어(엑세르코마이:발행하다,나오다,나가다,떠나다,피하다,외국으로 가다,가버리다,널리 퍼져 나가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향한 '함께 걷기[스랑크니조마이:간절히 열망하다,동정(同情)을 느끼다,열정을 갖다]'로 동요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쇠약함[아르로스토스:쇠약한,병든(사람들,병약하게)]을 고치시니라.

Ω마1532. 그때에 예수께서 그분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니라, 내가 무리에게 '함께 걷기[스랑크니조마이:간절히 열망하다,동정(同情)을 느끼다,열정을 갖다]'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는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삼일째 머무르며, 먹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떠나 보내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이 길에서 기운을 잃지(에크뤼오:나른해지다,나약하다) 않을까 하느니라.

Ω마2034.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걷기'를 느끼시고[스랑크니조마이:간절히 열망하다,동정(同情)을 느끼다,열정을 갖다],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니라, 이에 곧바로 그들 눈들이 시력을 받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좇으니라,

인간이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만 합니다. 정말 안됐습니다"

하나님의 동정심 ; "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일체화, 동일시

Ω요1133.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 또한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영(靈)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니라.

Ω요1135. 예수께서 우시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우는 자들과 함께 움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롬12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감정에 의해 자극을 받으시는 지도 모릅니다.

존 레이크 박사 " 그녀를 두팔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헌신된 신자들은 이런 동정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정심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0415. 이는 우리의 연약함들의 감정으로 마음이 움직여질 수 없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 받는 것과 같이 모든 점들에서 시험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음이라,

Ω롬0826.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우리의 연약함[아스데네이아: (몸이나 마음의) 나약함,질병,연약함,유약함]들을 함께 잡고 계시느니라[쉬난틸람바노마이:반대편을 같이 잡다,협력(협조)하다,돕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데이:(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한다,~해야 한다,마주치다,(필요함에)틀림없다,필요하다] 만큼 정확하게(카도:어떤 일에 의하여,~만큼 정확하게,같은 비율로,~에 의하여,~만큼,같이,처럼~따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나타낼 수 없는(알랄레토스:말할 수 없는,표현될 수 없는 것) 신음들로써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느니라(휘페렌튀그카노:~을 위하여 중재하다).

무지는 연약함입니다.마귀는 우리의 무지를 이용하여 주의 빛을 가리고 미혹하여 진리를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마2641. 망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니라, 참으로 영(靈)은 기꺼이 하고자 하나, 육신[싸륵스:육체,동물의 고기,몸,(영혼과 대바해서,인간의 외적 상징인)육체,(연약성을 지닌) 인간성,인간]이 약하도다.

호0406. 내 백성이 지식[다아트:야다(직접 보아서 확인하다)에서 유래,지식,기교있는,알다,기꺼이 아는,알아채다,무식하게]의 부족 때문에 무너지느니라(다마:벙어리가 되다,조용하게 되다,실재하다,죽다,파괴하다,그치다,베어 넘기다,침묵을 가져오다,파멸하다,전적으로), 네가 지식(다아트)을 물리쳤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물리쳐, 네가 내게 아무런 제사장으로 되지 못하느니라. 네가 네 하나님의 토라(토라:법칙,법령,특히 십계명,오경,율법)을 잊어버렸음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니라.

히0416.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카리스:호의,은혜,선물,자비,너그러움,기쁨,감사)의 보좌에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엘레오스:긍휼,자비,인애)을 손에 넣고, 또 필요(부족)의 때에 돕는 은혜(호의)를 발견할 것이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동정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때 다음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Ω요1412.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위에서 믿는 그 자, 그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또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가 행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존 오스틴 ; 사랑의 흐름>

마1414. 이에 예수께서 앞으로 나가시어(엑세르코마이:발행하다,나오다,나가다,떠나다,피하다,외국으로 가다,가버리다,널리 퍼져 나가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향한 '함께 걷기[스랑크니조마이:간절히 열망하다,동정(同情)을 느끼다,열정을 갖다]'로 동요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쇠약함[아르로스토스:쇠약한,병든(사람들,병약하게)]을 고치시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심령(heart)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동정심(Divine Compassion)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 흐름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무리에게로 흘러갔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흐름을 따라 무리에게로 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사랑이 그날 고통 받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심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사랑이 그분의 삶의 방향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로 당신을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조심해야 할 일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을 명심하고,

돈에 대해 조심해라.

내가 이런 사역을 위해 기름부은 많은 나의 종들이 돈에 마음이 쏠려 내가 그들에게 준 기름부음과 사역을 잃어버렸다.

놓임을 받은 것에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에 뒤틀린 육신을 가진 어린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수천 달러도 내 놓을 것이다.

그들중 많은 이들이 네가 손을 얹을 때 놓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네가 지금까지 받아온 헌금만큼만 받아라

너는 너의 길을 가야한다.

신실히 행하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특별한 기름부음

병든자를 위해 사역하도록 특별한 기름부음을 예수님이 주신 경우 ; 몸의 양편에 손 얹기

1).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양손을 몸의 양편에 얹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내 양손 사이에 불길이 건너 뛰어 다니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몸안에 고통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 내면 그들은 나와야 합니다.

2).양손사이에 불길이나 기름부음이 없는 경우는 단순히 치유만 필요한 경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기름부음이 내손을 떠나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질병을 몰아내고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길 또는 기름부음이 내 손을 떠나 그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그가 병고침을 받은 것을 알게됩니다.

“네가 병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네 옆에 서 있을 것이고,

네가 여러 번 나를 보게될 것이다. 때때로 내가 청중들 가운데 어떤이들의 눈을 열 것이고, 그들은 "이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 사람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라고 말할 것이다.

내 두손은 마치 숯불을 각각 올려 놓은 듯 3일동안 화끈거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와 금식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면 동일한 기름부음이 내게 다시 임합니다.

"만일 기름부음이 네게서 없어지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라"

3).그러나 나는 악한 영이 그 병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손을 각각 사람의 이편 저편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2년후 주님께서는 환상가운데 내게 더 알려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성경에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고 알려진 은사가 네 사역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 은사의 역사로 나는 어떤사람의 몸이 귀신에 잡혀 있을 때 알 수가 있게 되어서, 이제는 손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Ⅸ. 치유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치유는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치유와 예수님의 치유는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몸을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 줌으로써 받은 치료를 놓칩니다

우리는 받은 치료를 굳게 잡아, 받은 치유를 마귀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Ω계0310. 네가 나의 인내[휘포모네: 즐거운(희망찬) 인내,지속,견딤]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땅 위에 거하는 그들을 체질하여 걸러내기 위해, 온 세상 위에 임하는 시험(페이라스모스:증거,제시,간청,훈련,도전,역경,유혹)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또한 지킬 것이니라,

계0311. 보라, 내가 속히 가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러면 아무도 네 화관(스테파노스:화관,영광 영예의 상징,게임에서의 상,단순한 면류관)을 가져가지 못하느니라.

계0312. 극복하는(물리치는) 그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주(支柱, 스튈로스:기둥,보조대,지주)로 만들 것이며, 또 그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 자 위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인 내 하나님의 성(城)의 이름을 쓸 것이니, 그 성(城)은 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느니라. 그리고 그 자 위에 내가 나의 새로운 이름을 쓸 것이니라.

"나은 줄 알았는데, 안 나은 모양이야"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곧 "마귀선생, 내 병을 가지고 어서 돌아오시요"하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다, 마귀야 너는 내게 그 병을 다시 줄 수 없다. 나는 치료받았고 또한 나는 치료받은 상태를 굳게 잡고 안 놓칠 것이다"라고 마귀를 거부하십시요

마귀는 자기가 있던 곳에 항상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고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이유.

집회등에서 치유를 받고나서, 사람들이 자기자신에게로 되돌아 갔을 때는

마귀가 거짓증상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 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똑같은 병을 다시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집에 갈 때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2~3주 후면 병고침받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행사해 보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말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되돌아 오려고 합니다.

마1244. 그후에 그가 말하느니라, "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왔을 때에, 그가 그것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싸로오:비로 쓸다) 꾸며져 있는(코스메오:정확한 순서대로 놓다,꾸미다,특별히 없애다,치장하다,장식하다,정돈하다) 것을 발견하느니라.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는지 배우지 않는다면 마귀를 쫓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사례>

나는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영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보니 3명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할 때 까지 그 영들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집에 돌아가자 말자 그런 책들을 찾아서 모두 불에 태우십시요

(이는, 그 영이 들어올 수 있게 하였던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요

셋째로, 매일 적어도 30분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요.

(둘째와 셋째는 그 사람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쁜 것을 없애 버리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요?

Ω약0407.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휘포탓쏘: 종속하다,복종하다,굴복하다,순종하다), 마왕[디아볼로스:디아발로(비방하다,비난하다)에서 유래,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에게 대항하라 (안디스테미:대항하다,반대하다,저항하다,거역하다,거스리다),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달아날 것이니라.

“야고보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마귀로 부터 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대적하여 격퇴하십시요.

두려움도 마귀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딤후0107.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데일리아:겁(怯), 두려움]의 영(靈)을 주시지 않고, 대신에 권능(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의 영(靈), 사랑의 영(靈), 그리고 건전한 정신(솝흐로니스모스:훈련,자제,근신하는 마음)의 영(靈)을 주셨음이라.

위의 말씀에서 성령님은 두려움을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마귀로 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도 마귀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병도 마귀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Ⅹ.병이 낫지 않는 이유**

◇성경은 병고침과 귀신 쫒아내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이 악령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고침의 경우에 영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루어야 한다면 주님이 당신께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이시고, 나도 지적인 존재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약 악한 영이 존재한다면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만큼만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 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악령을 다루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치유로만 섬길 것을 인도 받지만

똑 같은 사례로 보이는 경우임에도 영을 다루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예민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이유

1.언약아래서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2.조금 알어도 활용법을 모릅니다. 또 새 언약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남의 잘못, 남에 대한 쓴 감정, 미워하는 마음등이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내 것을 훔쳐갑니다.

◇기도해도 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를 않거나, 귀신이 쫒겨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자리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랑스러운 여성과 함께 치유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잠시 그녀를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낫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간은 괜찮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치유를 잃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건강이 안좋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이가 80세였는데, 많은 세월을 진짜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질병이 그녀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침대 곁에 서 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두살 때 선교사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녀는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능력의 흐름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